지나간 계절과 다가올 계절

현불논단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사찰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보내고 나면 하안거 정진을 준비한다. 이 말은 즉 봄을 보내고 다가올 여름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봄과 여름의 사이에 부처님오신날이 있다 보니, 겨울의 동안거를 마치고 봄의 준비를 부처님오신날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 시기는 참으로 바쁘지만 가장 설레고 따뜻한 시기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이후로 사회의 많은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고, 사람들도 일상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면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불안감과 무책임이다. 오늘 하루의 일상은 어떤 큰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제와 비슷하게 하루가 지나갔다. 그러나 하루를 넘어 일상이라는 범위를 생각하면 무언가 항상 불안한 요즘이다.

불안감이 있다 보니 일상과 삶에 있어서 어떤 준비나 대비를 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될 대로 되라' 식의 생각이나,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 사회에서 익숙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흉내 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젊은 세대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것은 더욱 무섭고 위험한 광경이기도 하다.

언제부턴가 MZ세대, 젠지적 생각 등으로 젊은 세대를 구별하고 방치하는 듯한 풍토가 생겨났다. 어쩌면 그들이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것은 그들이 MZ여서가 아니라, 그런

무책임하게 맞이한 계절
어려움은 항상 자신의 몫
원인 파악하고 대비해야

것을 보고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은 아닌지 성찰해봐야 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과 같이, 앞선 세대들이 경제공황, 코로나 등의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그 이후 자신의 일상에서 그런 모습이 자리잡으며 그것이 다음 세대로 전달된 것일지도 모른다.

한 계절이 지나면 그 계절이 지나기 전에 다음 계절을 준비해야 한다. 준비를 놓치거나 안 하면 다음 계절이 찾아왔을 때 대응하지 못하거나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풍요롭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겨울의 문턱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김장을 하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많은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요즘이지만, 아직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우리는 지금 한 계절을 보내고 다음 계절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서 있다. 실제 계절이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그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나간 계절은 언제나 교훈을 남겨준다. 우리가 준비와 대비를 하지 못해 겪은 어려움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을 잘 확인하고 준비해야 다가올 계절을 잘 맞이할 수 있다. 다가온 계절을 무책임하게 맞이하게 되면 그 어려움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찾아온다.

'보살외인 중생외과(菩薩畏因 衆生畏果)'라는 가르침과 같이 언제까지 결과만을 두려워하는 중생이나 범부로 살 수 없다. 우리는 모두가 부처이며 보살이다. 이젠 그 원인을 잘 알고, 그것에 의해 일어났던 일과 그것을 다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바르게 알아 '잘' 준비해서, 우리의 일상과 삶, 사회가 별문제 없이 '잘' 지내도록 해야겠다. 우리의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배움이 되는 어제이고, 누군가와 함께할 내일이다.

대통령 선거와 잠자리 눈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다가오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 생명선' 또는 '꽃'으로 표현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가장 바람직한 정치 형태로 평가받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도 중요한 담론으로 등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선거의 위기에 있다. 선거는 전통적으로 정치인이 시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여론을 반영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제도로 보았다. 매우 규범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많은 정치학자는 선거를 통해 정부나 정치엘리트들이 국민을 순종시키고 침묵하도록 만들며, 궁극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치 엘리트들이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거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거는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지고 있다. 결국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인 정치엘리트와 국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쌍방향 통로'라고 볼 수 있다.

정치인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선거 전략과 조직 그리고 카리스마를 이용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데올로기'와 '지역감정'이다. 이것은 유권자를 편 가르기를 하여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현

3만여 렌즈 구성된 잠자리 눈
상하좌우 분별없이 볼 수 있어
잠자리 눈 갖고 투표에 참여를

상은 지구촌 곳곳의 정치판에서 횡행하고 있으며, 한국 정치의 현실은 더욱 심하다. 독단적 이념과 지역감정을 넘어서는 거대 담론을 주창하고 있지만 선거 현장에서는 구분 짓기에 진력하고 분노와 미움을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인 민주적 인성과 정치문화를 함양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언뜻 '잠자리 눈'이 떠오른다. 웬 잠자리 눈인가? 잠자리 눈은 3만여 개의 렌즈로 구성되어 상하좌우를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데올로기와 지역감정 등 편 가르기의 심리는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집단 최면을 유도한다. 선거판에서 정치인은 이 유혹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금강경〉 가르침의 핵심은 '분별심'의 극복을 통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 본다. 분별하면서 분별을 뛰어넘고, 다시 분별하면서 또 분별을 뛰어넘고.

잠자리 눈은 바로 연기적 시선이고, 중도의 눈이다. 민주주의와 불교는 매우 친화력이 높다. 민주적인 작은 국가인 밧지국을 보호하고 이를 계기로 유명한 '칠불쇠법'이 만들어진다(〈유행경〉). 민주주의는 자비 공동체를 구현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자비 윤리는 특정 이념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보류하고, 또한 타인의 행위에 대해 독단적 판단을 유예하고 연민심을 가지고 접근한다. 자비의 상호윤리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이다. 한국 민주주의 발달에 붓다의 지혜와 불교도의 자세가 씨앗의 역할을 하길 염원한다.

이번 선거에 잠자리 눈으로 고뇌하고 참여하자. 천 개의 눈으로 중생의 고통을 감내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이 잠자리 눈으로 화신하신 것이니라.

社 說

동국대 건학위원회 4주년에 부쳐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4월 29일자로 4주년을 맞았다. 동국대는 건학위원회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난 4년은 동국대에게 혁신과 변화의 시기였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대학생 전법과 장학제도다. 특히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의 대표적인 장학제도로 지난 4년 동안 2767명이 수혜를 받았다. 2024년에만 17억 5100만원이 장학금으로 수여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을 통한 캠퍼스 전법은 동국대를 대학생 전법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울과 경주에 총 25개 동아리가 창립돼 총 5758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같은 사업 성과들로 동국대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중앙일보 대학평가 TOP10'을 이끌어냈다. 또한 2026년도 첨단분야 신입생 정원 배정에서 64명이 증원됐다. 이는 서울권 대학에서 가장 많은 증원으로 전국 2위에 해당되는 규모다.

'괄목상대'할 변화를 이끈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올해에도 대학생 전법 확장·안정화, 장학기금 확충, 로터스관 기공식 등의 사업을 꾸준히 전개한다. 모두 '동국 발전이 불교 중흥'이라는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원력이 담긴 불사들이다. 내년 개교 120주년을 맞는 동국대가 해내야하는 불사들이기도 하다.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우직하게 나아가길 바란다.

성보박물관도 '배리어프리' 환경 갖추자

국립춘천박물관이 최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지난해 보물로 지정된 금동보살입상과 고려 초 강원 지역 철불을 대표하는 철조약사불좌상(보물)을 모형화한 촉각 체험물 8점을 설치해 관람객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며 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체험물에 대한 설명을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음성안내기와 손으로 읽을 수 있는 점자 안내문도 마련했다.

이처럼 국공립 박물관들은 경사로, 장애인·가족 화장실 등과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을 넘어, 큰 글씨 전시품 해설책과 촉각 전시, 점자 블록, 수어 해설 영상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환경을 조성하는 추세다.

배리어프리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이다. 본지는 올해 부처님오신날 특집호에서 '배리어프리-無장애불교'를 기획 기사로 다루었다. 불교계의 배리어프리 현황과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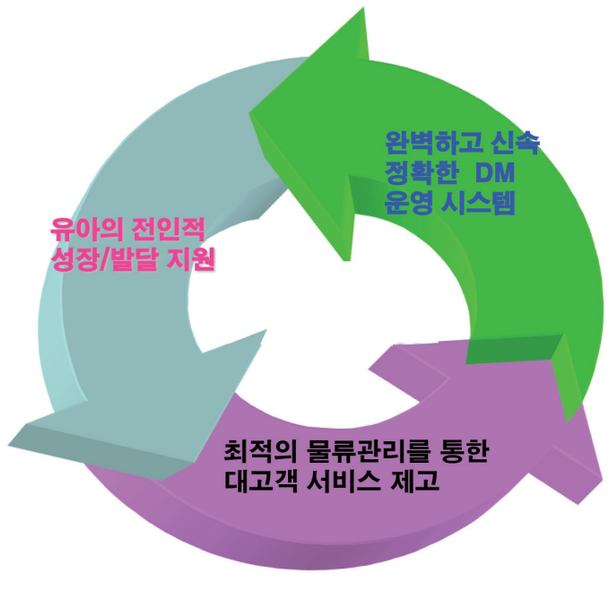
국립춘천박물관 사례에서 보듯 불교계도 사찰뿐 아니라 불교 문화유산의 보고인 성보박물관을 사회적 약자에게 문턱을 낮춘 시설로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성보박물관이 단순한 전시관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감으로 느끼고 그 가치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국내 최초 DM 서비스 제공, 유수한 경험의 전문 기업 덕성기획(주)



덕성기획㈜는
DM 및 물류 사업을
고객 입장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임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덕성기획(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219번길 87
TEL : (02)2615-0183(대) FAX : (02)2689-3139 www.duksungdm.co.kr
▶ DM사업본부 ▶ 물류사업본부 ▶ 유아교육사업본부(노벨과 개미)

유아교육사업본부 덕성기획(주) 노벨과 개미+

미래를 여는 (주)덕성C&B
직배사업부 :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직배서비스 운영
TEL : (02)2615-3296(대) FAX : (02)666-3139